

park@chosun.ac.kr

제4장 완전경쟁시장

박성훈

목차

4.1 완전경쟁시장의 개념

4.2 완전경쟁과 효율

4.3. 완전경쟁과 사회후생

4.4 경쟁시장과 소비자잉여

4.5 유효경쟁

4.1 완전경쟁시장의 개념

조건1.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

조건2. 생산품의 동질성

조건3.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

☞ 진입과 퇴거(이탈)의 자유: 장기

조건4. 정보의 완전성: 시장가격(생산품, 생산요소) –
확률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

챔벌린(Chamberlin): 순수경쟁시장 - 조건1과 조건2

▣ 특성

1. 각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약함(없음)
2. 각 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
(가격 순응자)
3. 각 기업의 행동(생산량 결정)은 시장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함

4.2 완전경쟁과 효율

개별기업이 직면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무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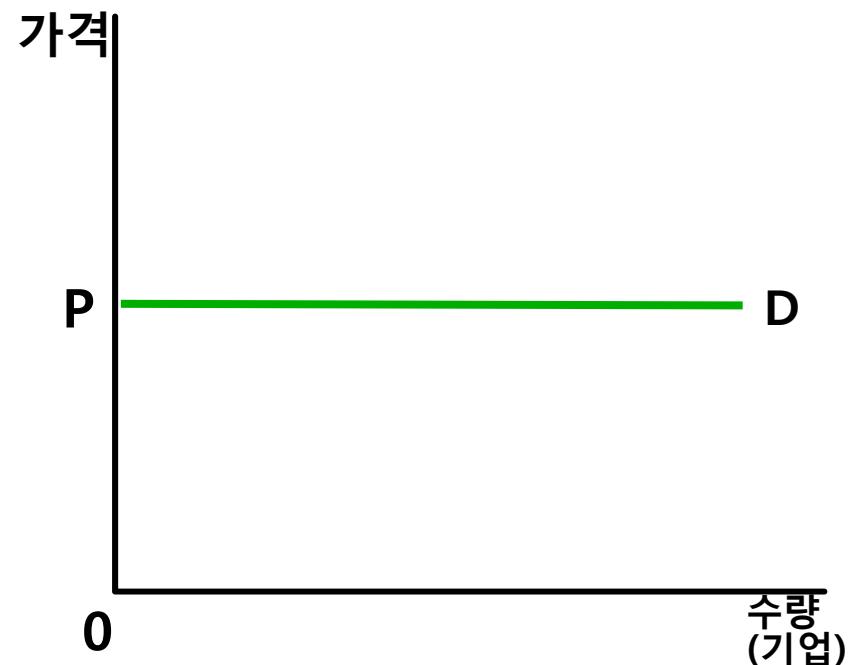
왜?)

개별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은
서로 완전대체재이기 때문!

□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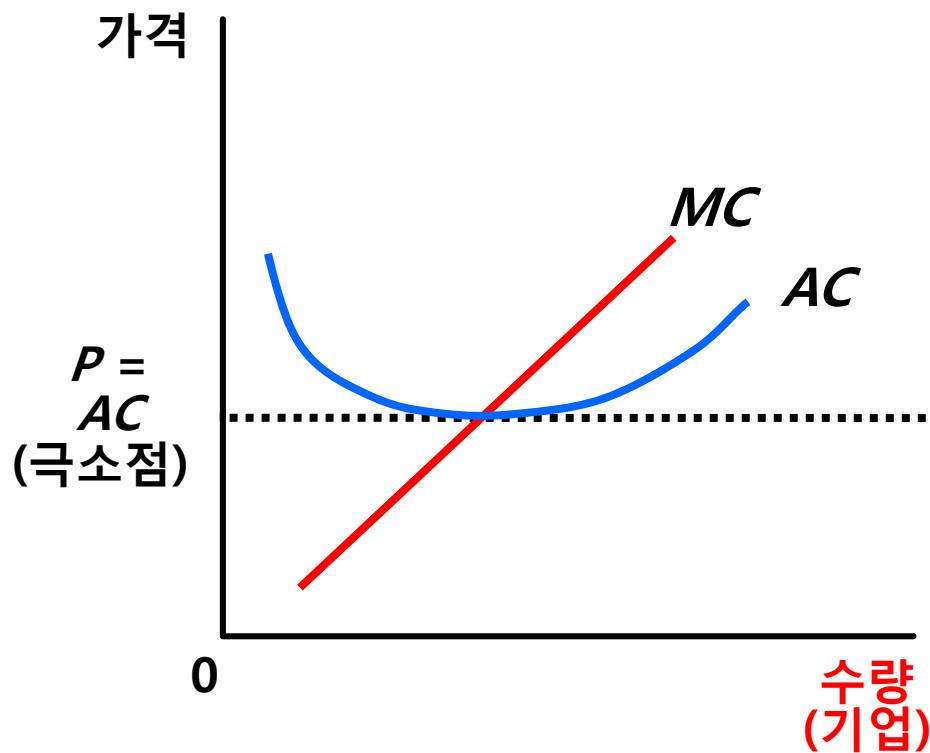
$$P = MR = MC$$

개별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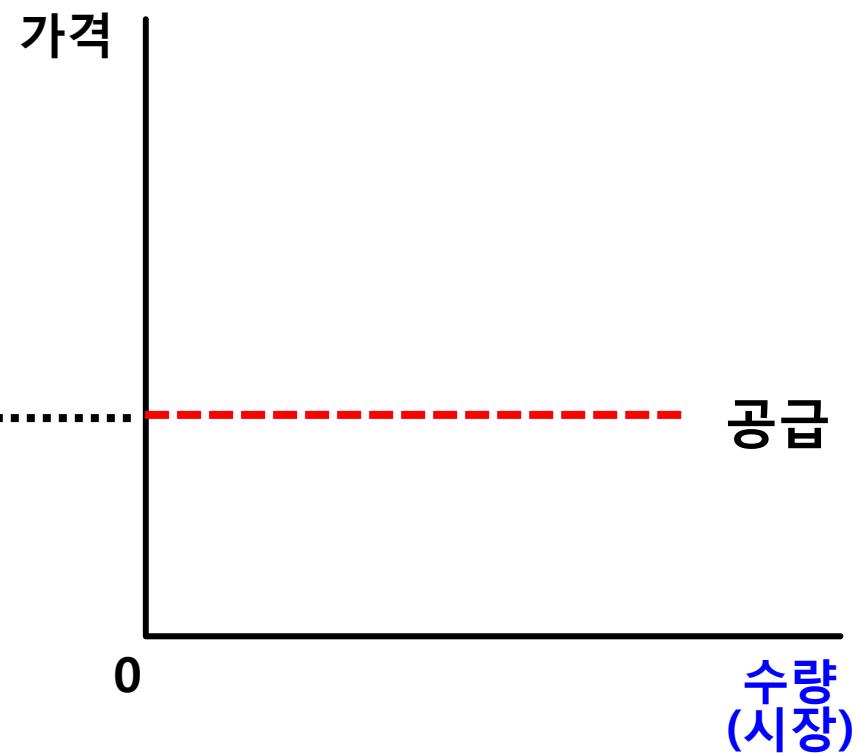


초과이윤 = 0:
 $P = MR = MC = 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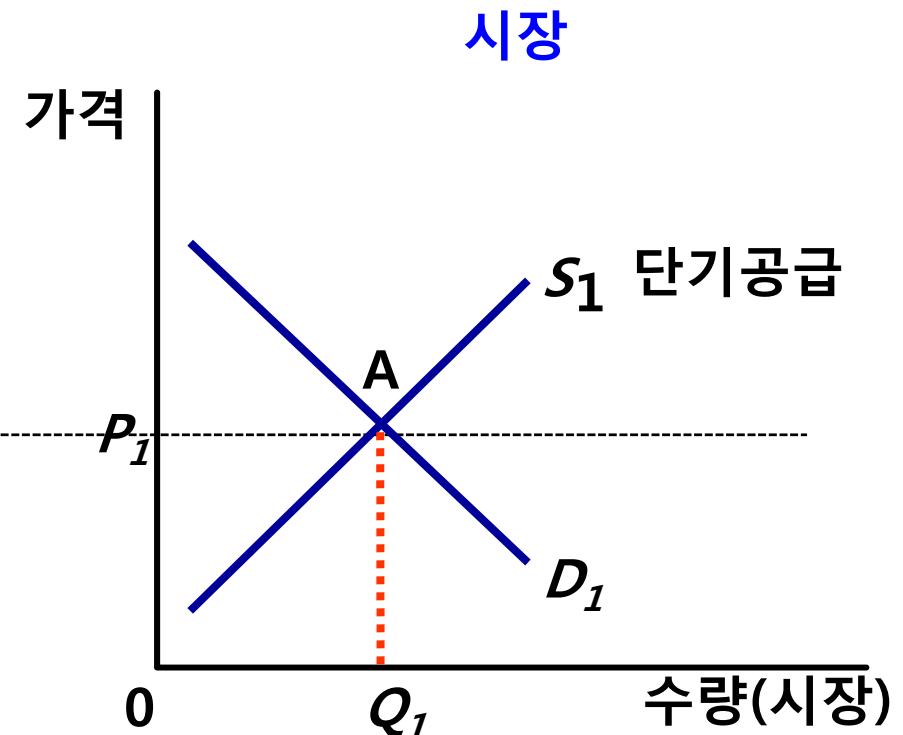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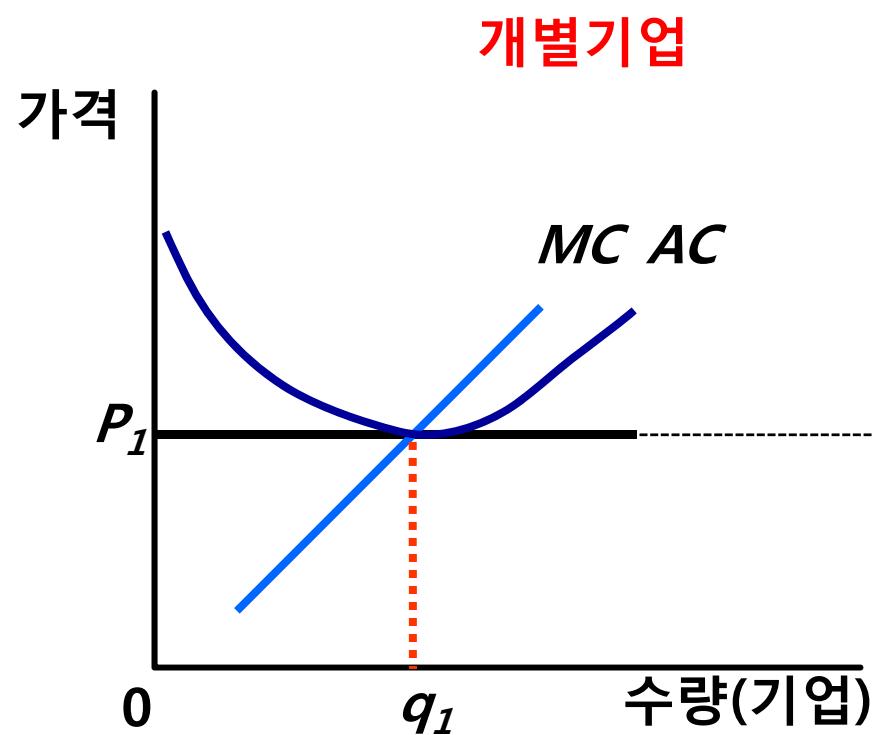
(a) 기업의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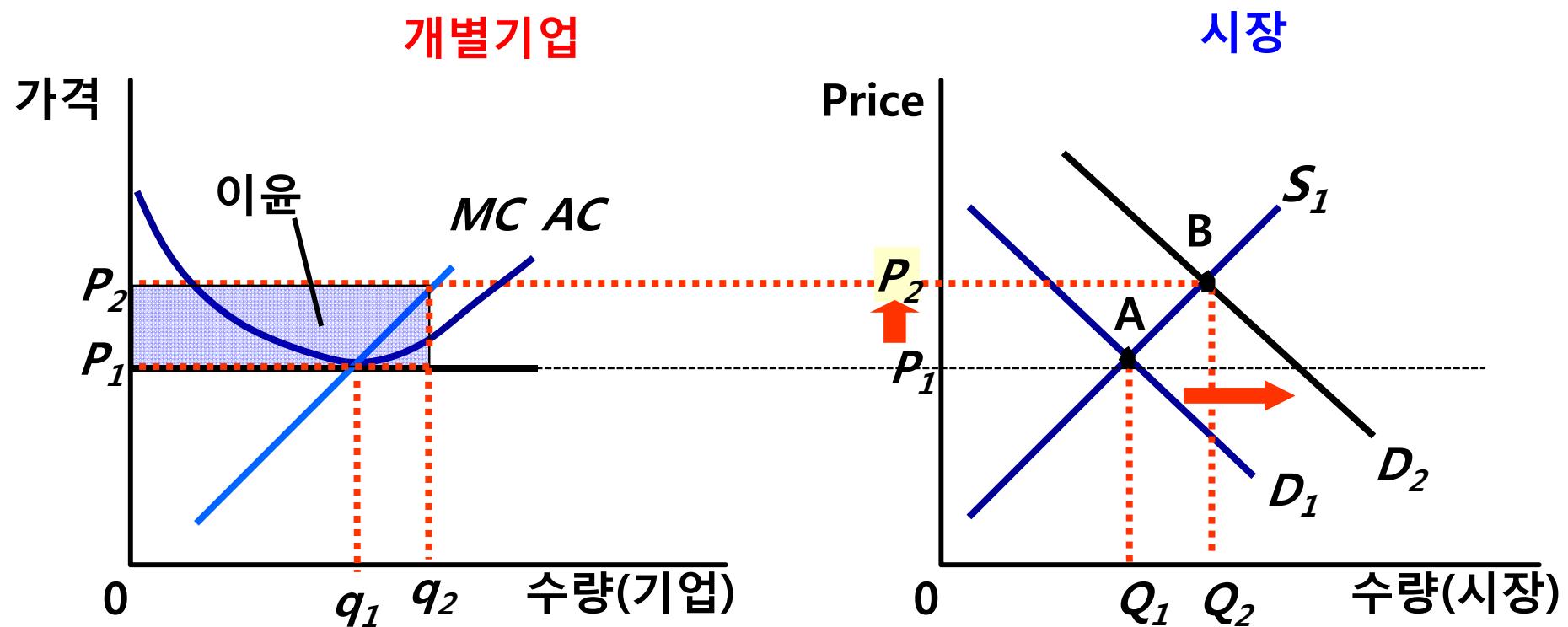
(b) 장기 시장공급



(a) 초기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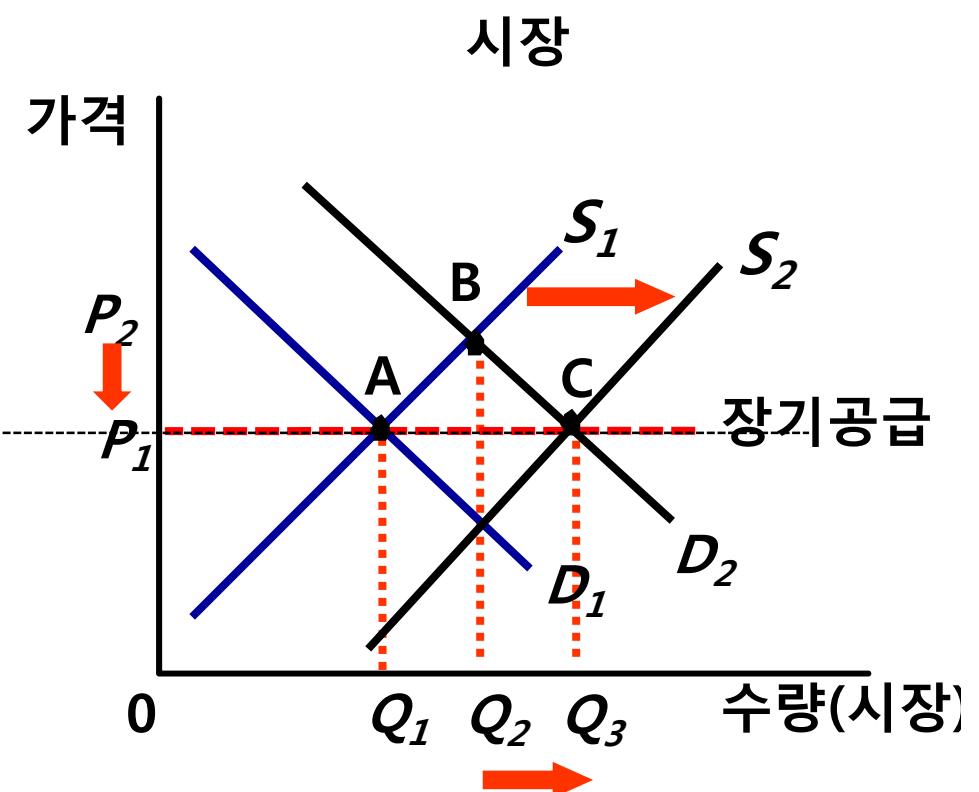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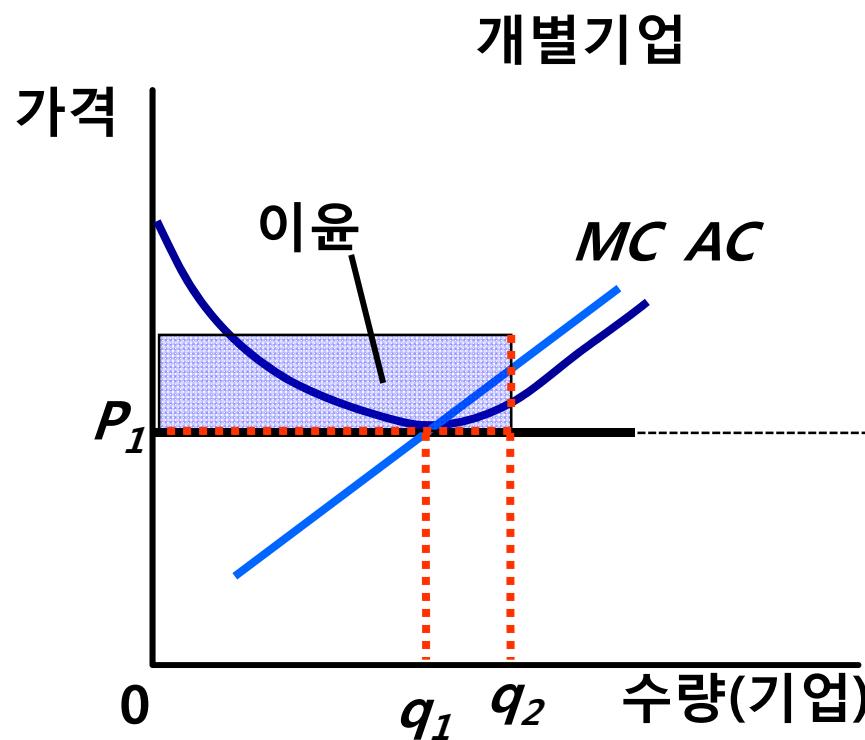


(b) 단기반응(단기균형)



초과이윤 = 0:
 $P = MR = MC = AC$

(c) 장기반응(장기균형)



▣ 자원배분의 효율성

$$\square P = MR = MC = AC$$

- 개별기업은 평균비용의 최소점에서 생산하게 되며 정상이윤만을 획득
 - 생산비가 높은 비효율적 기업은 경쟁산업에서 탈락
- ☞ **효율적 기업만이 생산활동을 하게 됨**

4.3 완전경쟁과 사회후생

□ 효율적인 자원배분

- 경쟁의 압력: 비효율적인 기업은 도태
적자 생존의 냉엄한 경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강제.
- $P = MC$: 가격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비용에서 결정됨
소비자는 적정비용 이외에 다른 어떤 비용도 추가로 지불
하지 않음
- $P = MC = AC$: 장기평균비용 곡선상의 최저점에서 생산
(최적 시설규모, 장기 최적 생산수준)

□ 사회후생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완전경쟁하에서는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 비교: 소비자 잉여 1원 증가 vs 생산자 잉여 1원 증가

- 사회후생의 변화는 동일하다고 말한다
 - 소비자잉여가 증가하던, 생산자잉여가 증가하던 구별을 하지 않음
즉,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소비자 0원 증가 그리고 생산자 2원 증가와 동일

■ 파레토 최적성(Pareto optimality)

: 사회후생과 유사한 개념

□ 파레토 최적이란

어떤 다른 사람의 효용의 감소 없이는 어떤 사람의 효용도 증가할 수 없는 상태

□ 완전경쟁균형은 두 가지 사회후생정리 제공

- 후생경제학 제1정리
- 후생경제학 제2정리

▣ 후생경제학의 제 1 정리

- **(The First Theorem of Welfare Economics):**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기본공리(완비성, 이행성, 연속성)와 강단조성을 갖고 경제안에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 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증명(참고):

일반 경쟁균형의 배분보다 더욱 효율적인 배분이 존재 할 수 없음을 보이면 된다(귀류법)

□ 후생경제학의 제 1 정리의 의미: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

i) 자본시장 경제가 효율적이다.

-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현대적 해석

시장의 힘(왈라스적 경매자)를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했을 때
시장의 힘이 자유로이 발휘 될 수 있는 경쟁적 상황을 전제.

ii) 모든 경제주체가 상품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정 해 나 간 결과로서 일반경쟁균형은 달성된다.

i) & ii)

- ☞ 시장의 힘은 각 경제주체의 상충하는 욕구를 조정하여
시장경제의 균형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함.

□ 후생경제학 제 1 정리의 한계

a) 이상적인 시장 조건의 존재 유무

- 현실적으로 찾아 보기 힘들다.
- 불완전 경쟁이나 외부성의 존재 때문

b) 공평성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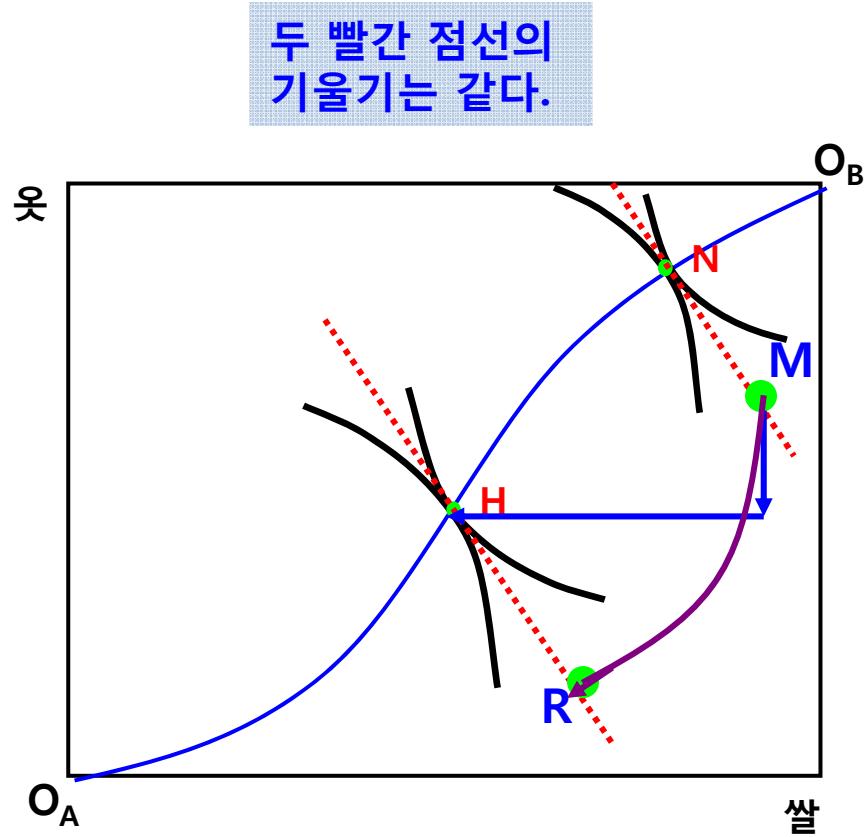
-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이 최선의 배분이 아닐지 모른다.

▣ 후생경제학의 제 2 정리

초기 부존자원을 적절히 배분한 상태에서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기본공리(+ 볼록성)과
강단조성을 만족시키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경쟁균형이 된다.

□ 제 2 정리의 의미

- 정부의 개입을 통한 자원의 재 배분에 의해서
완전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을 달성함을 뜻한다.



□ 현금을 통한 이전

어떤 경제의 초기 부존자원이 M
점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N점이다.

이러할 때 더욱 공평하다고 생각
할 수 있는 H점으로 되는 배분을
실현시킨다고 하자.

이 때 A에게서, 필요한 만큼의
정액세를 현금으로 거두어 B에게
이전시키면서,

모든 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
격에 의해서 이루어 지도록 하
는 방법

□ 후생경제학의 제 2 정리는

- 정부의 개입을 통한 자원의 재배분에 의해서 완전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뜻한다.

논쟁: 수많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 가운데 어느 배분이 더 바람직한가? 즉 공평한가? : 정부의 가치판단을 반영할 뿐.

-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손질을 하면 필연적으로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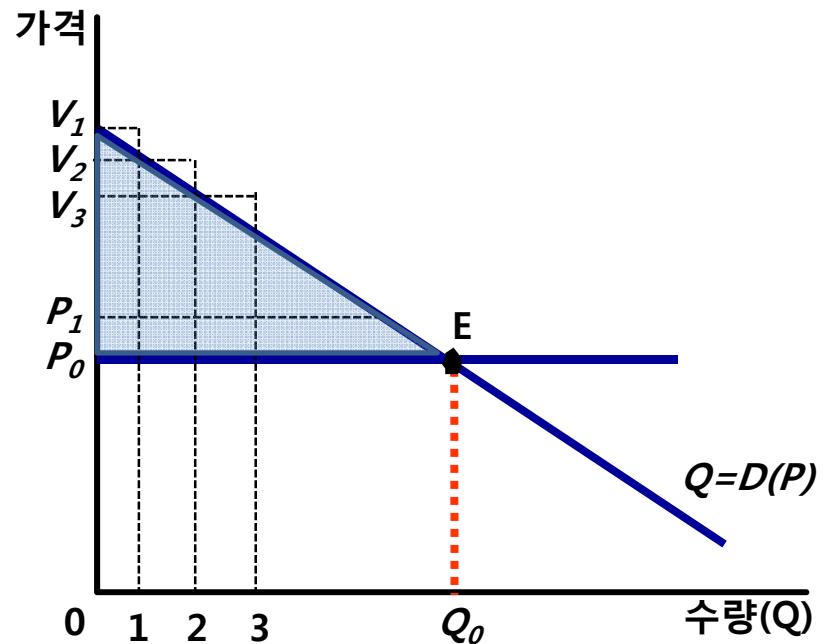
논쟁: 정보의 비대칭성은 초기의 부존자원을 정확하게 하기 힘들게 만든다: 정확한 정액세를 계산하기 힘들게 한다.

4.4 경쟁과 소비자잉여

▣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
(마샬의 소비자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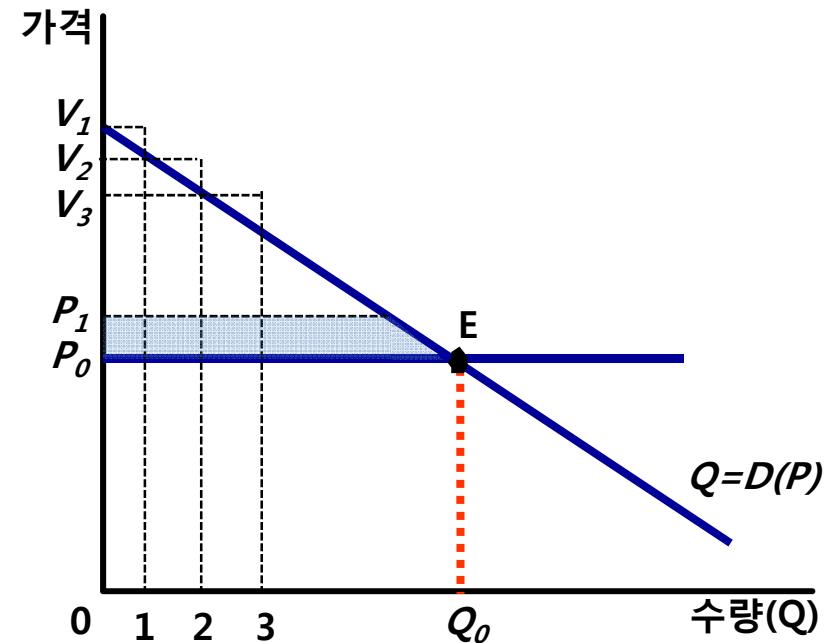
$$CS^n = \int_{P_0}^{V_1} D(P) dP$$



▣ 소비자잉여의 변화

- 가격이 P_0 에서 P_1 으로 변화하였을 때

$$\Delta CS^n = - \int_{P_0}^{V_1} D(P) 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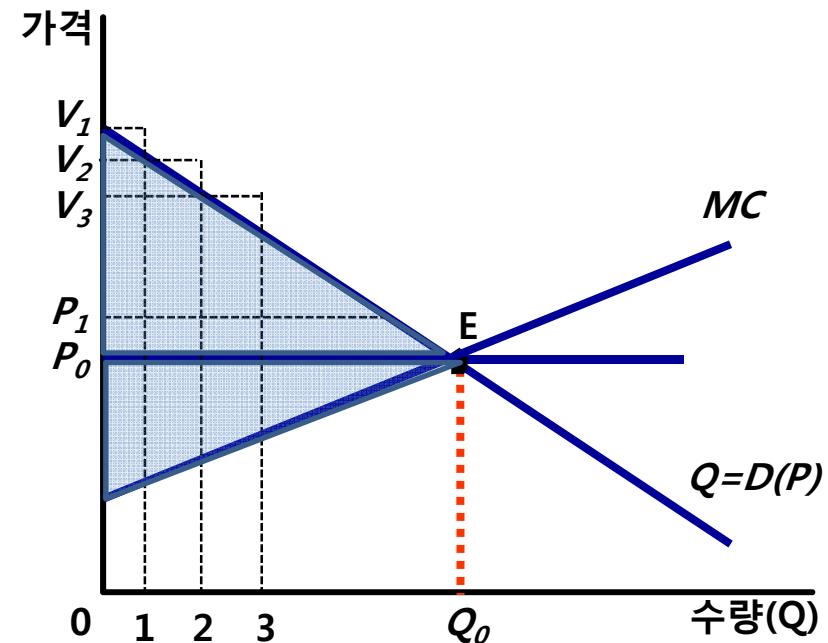


□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

-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
(기업의 이윤)

□ 사회후생(social welfare)

- 생산자잉여 + 소비자잉여



4.5 유효경쟁

□ 완전경쟁시장의 비현실성

- 완전경쟁시장은 이상적인 시장구조임에는 틀림없다.
- 현실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장구조이다.

□ 유효경쟁: 클라크(Clark)가 처음 시도



- 실현가능한 또는 운용가능한 경쟁(workable competition)
- 소스닉(Sosnick), 퍼거슨(Ferguson)에 의해 보완
- 완전경쟁의 조건을 현실성 있게 완화하면서,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 제시

□ 유효경쟁의 조건

1. 구조적 기준

- 인위적 또는 제도적 진입과 이탈의 자유
-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가 규모의 경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많아야 함
- 품질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음(가격이 다르다면)

2. 행태적 기준

- 기업간 담합이 존재하지 않음
- 배타적이고 약탈적이거나 강압적인 시장행태를 나타내지 않아야 함
- 부정수단에 의한 판촉활동이 없어야 함
- '후생을 저하시키는 유해한' 가격차별화가 실시되지 않아야 함
- 경쟁기업이 상대기업의 가격전략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없어야 함

3. 성과기준

- 이윤이 기술혁신과 투자 및 효율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정도만 확보되고,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제품의 수량과 품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함
- 개별기업이 신기술과 신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판촉활동비가 '과다하게 많지 않으며', 개별기업이 효율적인 생산을 하여야 함
- 가격변동으로 인한 경기순환적 불안정이 극심하지 않고,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판매자가 가장 많이 보상받아야 함